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 문체

이두희*

1. 서론

누가의 내러티브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9:21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의향을 피력한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1-21:16에서 그의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한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단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단락이 특이한 첫 번째 이유는, 이 단락 이전까지의 내러티브(행 13-19장)는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선교 활동에 관한 것이고, 이 단락에 이어지는 부분(행 21-28장)은 율법과 로마의 관습을 어겼다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 단락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며 이방 지역에서 행했던 이전의 자기 사역에 대해 되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이다.[1] 두 번째로 이 단락이 특이한 이유는, 이 단락이 지리적인 이동의 견지에서 그리고 바울의 운명의 역전(자유로운 선교사에서 죄수로의 운명의 전환)이라는 견지에서 내러티브의 전환점 역

* 장로회 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1) J. Lambrecht, "Paul's Farewell-Address at Miletus (Acts 20, 17-38)," Jacob Kremer, ed., *Les Actes des Apotres: Traditions, Redaction, Theologie*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9), 303.

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학적 특징과 더불어,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기로 한 바울의 결심과 관련된 감정적인 첨예성은 내러티브 내에 등장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감정에 적절히 호소하여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누가의 노력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세 가지 요소, 즉 바울 설교의 계기가 고별 설교라는 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청중으로 하고 있는 설교라는 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험과 고난으로 가득 찬,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여행이라는 점이, 누가가 '비극적 문체'를 활용하여 최대의 감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비극적 역사'라는 문체의 두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누가가 독자들에게 기독교 윤리와 신학적 가르침을 전할 때 얼마나 깊이,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두 가지 특징 중의 하나는 누가가 독자들의 감정에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가지 어려운 선택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의 극화'이다.[2)]

---

2) '비극적 역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폴리뷔오스는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비극적 역사' 문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감정에 호소'를 들고 있다.

> 읽는 이들의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읽혀진 내용들에 공감하도록 만들기를 열망하면서, 그는 여자들의 뒤엉킴, 헝클어진 머리카락, 젖가슴의 드러남, 또한 이것들에 더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식들과 노부모와 뒤섞여 (노예로) 끌려갈 때,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탄식을 (역사 기술에) 이끌어 들인다. 항상 매번 끔찍한 것들을 눈앞에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그는 그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역사가는 신기한 것들을 말하면서 그의 역사를 통하여 읽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폴리뷔오스, 「역사」 (2. 56-60)>.

참고, 이두희,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37 (2009), 48-49. 이외에 '비극적 역사' 문체에 대한 한글 논문으

2.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비극적 역사' 문체의 흔적인 '예외적으로 강력한 감정적 호소'

2.1. 사도행전 20:36-38에 나타난 감정적 호소의 흔적

신약성경에서 가장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장면 중의 하나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이별하는 장면일 것이다(행 20: 17-38). 이 장면을 대충만 읽어보더라도 독자들은 이 장면에 연계된 파토스(pathos)의 강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3]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이별하는 마지막 장면은 특히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 하니라(행 20:36-38).

룩 존슨(Luke Johnson)은 이 본문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누가는 바울의 말에 대한 반응에서 특별한 정도로 눈물, 포옹, 키스, 그리고 고통의 감정 등 감정적 표출을 다루고 있다."[4]고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감정의 표출은 절제 된 역사적 설명들에서도 선례가 없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예로 필로(Embassy to Gaius, 243)와 요세푸스(AJ 2:402)를 언급한다.[5] 벤 위더링톤은 이 이별의 순간에 얽혀 있는 높은

로는 필자의 글 "고대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4 (2010), 47-67을 참조할 수 있다.

3) Beverly Roberts Gaventa, *The Acts of the Apostles*,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288.

4) Luke Timothy Johnson, *The Acts of the Apostles,* Daniel J. Harrington, ed., Sacra Pagina Series 5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1992), 366.

5) Ibid.

감정 수위를 인식하면서, 이 장면을 '매우 고통스러운(gut-wrenching)' 장면이라고 기술한다.[6] 앞서 언급한 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감정의 표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들은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 기록에서 발견되는 '비극적 역사' 문체와 이 장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

2.2. 사도행전 20:36-38에 나타난 감정적 호소를 고별 연설의 한 요소로 설명한 연구들

이 이별 장면에서 행해진 바울의 설교와 관련하여 많은 성서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문학적 양식은 '고별 연설(farewell address)'이다.[7] '고별 연설'이라는 문학적 장르의 견지에서 볼 때, 학자들은 사도행전 20:36-38에 나타난 감정적 표출을 단순히 다른 많은 고별 연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윌리엄 쿠르츠(William Kurz)는 제1 마카비 2:49-70,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2. 279-284, 창세기 49장, 신명기 31-3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고별 연설들을 연구한다. 이런 문학적 사례 연구에서, 쿠르츠는 '고별 연설'의 몇 가지 형식적인 요소들을 뽑아낸다.[8]

1) 미래, 특히 미래의 배교에 대한 예언과 경고,
2)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

6) Ben Witheringto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Carlisle: W. B. Eerdmans Pub/Paternoster Press, 1998), 627.

7) Hans-Joachim Michel, *Die Absschiedsrede des Paulus an die Kirche Apg 20, 17-38: Motiv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Stud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35 (München: Kösel, 1973); J. Lambrecht, "Paul's Farewell-Address at Miletus (Acts 20, 17-38)," 307-337.

8) William Kurz, *Farewell Addresses in the New Testament*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0), 32.

3) 이 가르침들을 행하고 전수하도록 후계자들에게 권면함,
4) "조상들의 행위들(deeds of the fathers)"을 모델로 언급함,
5) 권위들을 명명하고, 미래 과업에 그들을 위임함,
6) 기도와 축복(혹은 저주),
7) 화자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백성들의 애곡에 대한 고지,
8) 권위의 승계,
9) 화자에 대한 칭찬(칭송).

고별 연설의 이와 같은 형식적 요소들을 염두에 두면서, 쿠르츠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별 연설의 구조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9]

1)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를 책임질 장로들에게 말을 한다.
2) 장로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한다.
3)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한다.
4)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관련하여, 바울은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5)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배교나 거짓 교사들과 같은 문제 상황들에 대해 예고한다.
6)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충실히 돌보도록 권고한다.
7) 바울은 장로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8)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기도한다.
9) 바울은 장로들과 작별의 제스쳐를 교환한다.

쿠르츠는 사도행전 20:36-38에 나오는 모든 감정적인 요소들을 단지 고별 연설들의 결론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별의 말과 몸짓

9) Ibid., 34.

들'이라는 형식적 요소라고 간주한다.[10]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한스 요아힘 미첼(Hans-Joachim Michel)의 연구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쿠르츠의 것과 비슷하다. 양식 비평 연구의 하나로, 미첼의 분석은 '고별 연설'의 형식 요소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연구는 쿠르츠의 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철저하다. 구약과 유대 문헌들로부터의 다양한 사례들을 일괄하면서, 미첼은 어떤 예비적인 외형적 틀을 부과함이 없이 자신의 비평적 관찰에 근거해서 고별 연설의 형식적 특징들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미첼이 발견한 고별 연설의 형식적 요소들은 쿠르츠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1) 임박한 죽음의 확증,
2) 청중,
3) 권고,
4) 예언,
5) 죽는 자의 자기 결백 선언,
6) 후계자의 확증,
7) 축복,
8) 기도,
9) 마지막 교훈들,
10) 매장에 대한 지시,
11) 약속과 맹세,
12) 추가적인 이별의 몸짓,
13) 종말.[11]

---

10) Ibid., 50.

11) Hans-Joachim Michel, *Die Abschiedsrede des Paulus an die Kirche Apg 20, 17-38: Motiv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48-53.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면서, 미첼은 사도행전 20:36-38을 위에 언급한 8항과 12항의 결합으로 이해한다. 미첼에 따르면, 1, 2, 3 및 13항은 거의 모든 고별 연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4, 5, 7, 10 및 12항은 꽤 자주 발견된다.[12] 미첼은 고별 연설(Abschiedsrede)과 고별 장면(Abschiedsszene)의 차이를 의식하고 있는 반면, 바울의 밀레도 설교의 경우에, 미첼은 "고별 장면은 본질적으로 (고별) 연설로 환원된다"고 논평한다.[13] 이러한 관점의 당연한 귀결로서, 사도행전 20:36-38은 그의 연구의 나머지 부분에서 미첼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14]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0:36-38은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고별 연설의 형식적 한 요소로서 때때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 눈물겹게 감성적인 장면에서 노출된 문체적 특징은 주석가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주석가들은 바울 설교의 내용과 그 신학적 함의에만 집중했다.

2.3. 사도행전 21: 5-6에 나타난 감정적 호소의 흔적

다른 한편, 사도행전 20:36-38을 이별 장면으로 재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특별히 바울의 고별 여행(행 20:1-21:16)이라는 더 큰 문학적 맥락에서, 우리는 두로 지방에서 '파토스로 가득 찬' 또 다른 이별 장면을 만나게 된다.[15]

>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women and children)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12) Ibid., 54.
13) Ibid., 53.
14)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고별 연설로 보는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참고. J. Lambrecht, "Paul's Farewell-Address at Miletus (Acts 20, 17-38)," 332-333.
15) Ben Witheringto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631.

> 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 가니라(행 21:5-6)

사도행전 20:36-38과 비교해 볼 때, 이 이별 장면은 다소 덜 감성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여전히 분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누가는 이 이별 장면에서 남자들과 나란히 '여자들과 아이들'의 존재를 보도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하워드 마샬(I. Howard Marshall)은 이 장면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누가의 언급에서 어떤 중요성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단지 그것이 있을법한 역사적 사실의 보도라고 결론짓는다. 마샬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장면이 함축하는 바는 바울이 전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16]

마샬과 달리, 가벤타는 이 장면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라는 언급의 독특성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예, 8:3, 12; 9:2; 22:4) 누가는 신자들 중에 '남자들과 여자들'을 언급하는 것"과 대비가 되기 때문이다.[17] 가벤타에 따르면, 이 언급은 일종의 유형 파괴이다. 가벤타는 이 유형 파괴가 상황의 심각성을 암시한다고 제안한다.[18] 그러나 주석가들은 이 특별한 구절의 사용이 함축하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놓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비극적 역사' 문체에 있어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패배한 전투 장면이라든지 포위 공격 장면들에서와 같이 감성적 관여가 의도된 장면들에서 거의 전형적인 등장인물들이다.[19] 이 장면

16) I. Howard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st American ed. (Grand Rapids: W. B. Eerdmans, 1980), 339; Ben Witheringto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631.

17) Beverly Roberts Gaventa, *The Acts of the Apostles*, 293.

18) Ibid.

19) Polybius, 2.56.7, 38.20.7; Thucydides, 7.29.4; Justin (두리스의 묘사에 의존한 것으로 추정됨), 23.2; Dionysius of Halicarnassus, 3.21.3, 8.45.1-2; Plutarch, *Agis* 17.1-18.2; Livy, 5.42.3-5, 28.22.6-11, 28.23.1-5, 31.17.4-10; Josephus, *B. J.* 5.429-433, 6.204-207, 7.391-399.

에서 감정은 사도행전 20:36-38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듯하지만, 파토스의 강도는 성문 밖에서 떠나는 바울을 전송하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그림에 의해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다.

2.4. 사도행전 21:13에 나타난 감정적 호소의 흔적

이런 맥락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공동체의 경고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행 21:13) 특기할만하다. 그것은 그 자체로 고별 장면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이사랴에서의 확대된 이별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감성을 자극하는 효과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20:36-38 및 사도행전 21:5-6과 궤를 같이한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관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우리" 그룹과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hemeis te kai hoi entopioi, 행 21:12)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 경고에 대해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행 21:13)라고 말하면서 반응한다. 바울의 반응은 간접적으로 공동체의 경고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울음'과 '가슴을 침'과 같은 강력한 감정 표현들과 함께 제시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자신이 상당한 파토스에 붙잡혀 있음이 또한 자명해 보인다.[20] 이 그림 같은 이미지는 이 장면에 연루되어 있는 강도 높은 감정의 정도를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준다.[21] 이러한 관점에서, 그와 같은 강도 높은 감정에 연루된 장면들이 1인칭 복수 주어 "우리"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 내러티브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만하다. 스코트 스펜서(F. Scott Spencer)는 "우리"라는 인칭대명사의 재도입이 독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감정적인 효과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22]

---

20) Ben Witheringto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634.
21) Beverly Roberts Gaventa, *The Acts of the Apostles*, 295.

익명의 “우리” 그룹이 갑자기 이 그룹이 마지막으로 언급되었던 장소인(16. 16) 빌립보에서 그림에 다시 등장하여, 바울과 함께 드로아로 항해한다(20. 6-7). 이 1인칭 복수 내러티브 관점은 다시 ‘우리’ 독자들을 바울의 경험에 더 가까이 데려가 준다. 그러한 친밀감이 우리로 하여금 곧 다가올 고별 장면들의 정서적인 충격을 더욱더 날카롭게 느끼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 내러티브 부분에서 강도 높은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와 같은 반복된 호소는 우리 관심의 재 정향을 정당화시켜준다. 필자가 보기에, 여기서 감정에 대한 누가의 특별한 강조는 ‘비극적 역사’ 문체의 영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별 장면들이 비극적 역사가들에게 독자들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추측을 그럴법한 가설의 단계로까지 끌어 올리도록 허용해준다. 필자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수행된 ‘비극적 역사’ 문체에 대한 고찰에서, 이미 대표적인 비극적 역사가인 두리스가, 아가토클레스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헤어지는 장면에 대한 묘사에서 어떻게 감정의 요소에 탐닉하였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여기에서 그 장면에 대한 두리스의 묘사를 다시 살펴보는 일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 문체의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그의 질병과 염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하나의 고통이 다른 고통의 파괴적인 성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을 때, 절망에 빠진 아가토클레스는 자신의 아내 테오크세나와 그들의 두 어린 자녀들을, 그들의 재산, 가족(household), 그리고 왕족의 소유물들과 함께-그 어떤 왕도 이것에 있어서 아가토클레스보다 부유하지 못했다-배에 태워 자기 아내의 고향인 이집트로 보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의 권력을 찬탈하는 자에 의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무서워했

22) F. Scott Spencer, *Ac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91.

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아내는 한참 동안 자신의 병든 남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떠남이 손자의 배신에 부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손자가 할아버지를 공격할 때만큼이나 자신의 남편을 떠나면서 그렇게 잔인해 보이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와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진정, 모든 운명을 함께 하기로 동의했었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 남편의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자신이 떠나게 되면 그 일을 아무도 해 줄 수 없게 되는 바, 그 마지막 의식들과 적절히 경건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떠날 때에, 어린 자녀들이 크게 울면서 그들의 아버지를 얼싸안고, 매달렸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계속해서 입 맞추고 있었다-그를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이었기에]. 노인들의 눈물들도 대단했다. 그들은 그들의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울었고, 아버지는 유배당하는 자녀들을 위해 울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떠남으로 인해 늙고 병들어, 외로이 남게 된 아버지를 위해 [애곡했다]: 그는 왕족의 권력에 대한 약속을 들으며 양육되었던 그들을 가난 속에 남겨둔 것에 대해서 [애곡했다.] 이와 더불어, 그런 잔인한 이별을 지켜보며 서 있던 이들의 울음으로 가득 채워진 궁궐 전체가 메아리쳐 울렸다. 마침내 떠남의 필연이 눈물을 그치게 만들었다. 그의 자녀들이 떠나고 왕은 죽음을 맞이했다(Justin 23.2, 밑줄은 필자의 것.).

아가토클레스의 이별 장면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바울의 이별 장면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울음, 얼싸안음, 매달림, 입맞춤'을 통한 감정 표현들, 바닷가에서의 이별, 다시 볼 수 없음에 대한 암시, 서로서로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존재 등을 포함해서 많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러한 진술을 통해 누가가 두리스의 이별 장면을 모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별 장면의 묘사가 '비극적 역사'의 모티브 중 하나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2.5. 고별 설교(행 20:17-38)에 나타난 감정적 호소의 요소

비극적 문체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고별 설교 자체 안에서도 감정적인 강조의 강한 암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만하다. 에베소에서의 지난 사역을 회고하면서, 바울은 두 번에 걸쳐 자신의 '눈물(20:19, 31),' 즉, 에베소인들에 대한 자기의 애정을 증명하는 자신의 내적 감정을 언급한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참고, 행 20:19),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참고, 행 20:23) 외적인 고난들과 더불어, 그의 눈물을 상기시킴은 에베소 장로들로부터 파토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의 독자들로부터도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별이라는 계기 자체가 자연스럽게 배경을 음울한 색조로 물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와 같이, 연설 자체가 그 안에 내적인 감정 상태에 대한 진술들을 포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23]

비극적 문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관련하여, 바울의 고별 설교에는 또 하나 주목할만한 구절이 있다. 그것은 '자기 피로(행 20:28)'라는 구절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에 관계된 본문 비평적인 문제점과 바울 신학과의 관련성에 주목했다.[24] 가벤타도 예외가 아니다. 그녀는

---

23)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한 누가의 보도가 바울의 눈물과 겸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람브레히트는 이 관찰로부터 누가가 바울의 과거 사역보다는 오히려 자기 시대의 교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한다. 아무튼 이 설교에서 바울 사역의 이러한 측면을 누가가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청자들에게 감정적인 효과를 고양시킨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참고, J. Lambrecht, "Paul's Farewell-Address at Miletus (Acts 20, 17-38)," 335-336.

24) Ibid., 322; Joseph A.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st ed. (New York: Doubleday, 1998), 680; Luke Timothy Johnson, *The Acts of the Apostles*, 363, 367. 사도행전 20:28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와 '자기 피로'라는 구절이 결합된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느낀 흔적들이 사본들에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사본들은 '하나님이'를 '주님이(kyriou)'로 고친

피를 언급한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불러일으키는 감정적인 효과에 대해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25]

>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이 설교에서 바울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바울 서신들에서 십자가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한편, 그러나 바울 서신들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피의 용어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구절은 26절에 나오는 피에 대한 언급의 영향 아래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일 수 있다. 장로들의 피에 대하여 바울의 무죄함은 예수의 죽음을 피를 쏟음과 동일시하도록 촉진한다. 게다가, 이 설교의 강도 높은 파토스는 생생한 표현을 덜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준다(밑줄은 필자의 것).

우리는 누가가 이미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씨름하시던 예수님의 묘사에서 피의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기억한다(참고, 눅 22:44).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내러티브 부분에서 누가의 강력한 감정에 대한 호소를 놓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감정에 대한 이런 예외적인 호소는 '비극적 역사' 문체에 대한 누가의 자각과 그의 글에서 그 문체를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두 개의 상충하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내린 어려운 결정으로서의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결정: 인간적인 대의명분 대 신적 대의명분

3.1. 사도행전이 구제금의 전달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목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경우가 있다. 혹은 '자기'로 번역된 헬라어 'idios'를 '자기 자신의 아들'로 이해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의 피로'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한 경우도 있다.

25) Beverly Roberts Gaventa, *The Acts of the Apostles*, 288.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 대한 누가의 보도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진정한 바울 서신들에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롬 15:25-26; 고전 16:1-4),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목적이 무엇인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이 여행이 연보와 관련된다는 것에 대한 암시가 두어 개 있기는 하다. 사도행전 20:4에서 누가는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로부터의 바울 일행 몇 명에 대하여 언급한다. 주석가들은 이 동행자들이 그들의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가져온 자들이라고 추측한다.[26] 벨릭스 앞에서의 심문 장면에서(행 24:17), 바울은 지나가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돈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말해주지는 않는다. 헨쉔이 언급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그것에 대한 암시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서신들로부터 바울의 위대한 연보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은 누가의 독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다."[27] 룩 존슨이 지적하듯이,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단지 추측만을 허용하는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28]

3.2. 이 놀라운 생략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대답들

바울의 여행 목적에 대한 이 놀라운 생략을 주목하면서, 폴 왈라스케이(Paul W. Walaskay)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과 그의 구제금에 대한

26) Ernst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1), 583.

27) Ibid., 655.

28) Luke Timothy Johnson, *The Literary Func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34-35.

냉담한 반응이 누가가 연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추측한다.[29] 룩 존슨은 이 설명적 공백에 대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한다. 첫째로, 존슨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누가-행전에서 소유의 상징적인 문학적 기능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추측한다. 존슨은 누가-행전에서 소유는 관계의 계층 구조를 상징하고, 그래서 돈을 제공하는 것은 수납자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제스처라고 해석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연보를 가져왔다는 누가의 보도는(행 11:27-30, 12:25) 예루살렘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인정을 암시한다는 것이 그럴 법하다. 다른 한편, 바울의 견지에서, 자기가 가져온 구제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동료 그리스도인 간의 연대의 표시로 이해되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존슨은 누가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과 관련하여 구제금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30]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존슨은 이 생략의 효과는 예수님 자신의 예루살렘 여행과 좀 더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일 수 있다고 추론했다.[31]

비슷한 방식으로, 문학비평가로 알려진 로버트 탠느힐(Robert Tannehill)은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금에 대해 누가가 언급을 생략한 것이 지닌 문학적 기능에 주의를 기울인다. 탠느힐은, 진정한 바울 서신들에서 바울의 계획에서 주요한 요소였던 구제금 언급을 생략하여,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의 신적인 필연성에 대한 강조와 이 필연성에 순종하려는 바울의 굳은 결심이 부각된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찰에서 탠느힐은 누가의 의도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인간적 동기에 대한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신적인 목적성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추측한다.[32] 탠느힐은 누가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29) Paul W. Walaskay, *Acts*, Westminster Bible Commentary Companion, 1st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85, 193.
30) Luke Timothy Johnson, *The Literary Func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 219-220.
31) Luke Timothy Johnson, *The Acts of the Apostles*, 357.

것은 일상적인 인간적 동기에서가 아니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3.3.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관련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된 상충하는 예언들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동기가 아직 사도행전에 따를 경우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정에 있는 바울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게 될 고난을 강조한다.[33]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행 20:23), 바울은 그의 투옥과 고난(desma kai thlipsis)에 대한 성령의 예언을 언급한다. 사도행전 21:4에서,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dia thou pneumatos) 예루살렘에 가지 말도록 권유한다. 그들은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이 경고조의 권고가 신적으로 승인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은 문맥에서 분명하다. 다시 한 번, 사도행전 21:10-11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드라마틱한 판토마임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 운명을 예언한다. 이 예언에 기초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에게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청한다. 바울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이 반복된 예언들은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오늘날 독자들에게 감정의 강도와 긴장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한 성령의 이런 예언

32)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2: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1), 266-267.

33) Martin Dibelius and Heinrich Greeven, *Studie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SCM Press, 1956), 201; Charles H. Talbert, *Literary Patterns, Theological Themes, and the Genre of Luke-Acts* (Missoula: Scholars' Press, 1975), 16.

들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성령의 인도에 기초한 바울의 의지와 두로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지시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모순"이라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발견한다.[34] 학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성령에 의해 영감 된 예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켜 보려고 몇 가지 해결책들을 내놓았다. 헨쉔은 사도행전 21:4b를 후대의 삽입으로 설명해 버린다. 이것은 역사비평가들이 내러티브 내에 존재하는 불협화음을 처리하는 전형적인 방법에 속한다.[35] 한스 콘첼만(Hans Conzelmann)은 그 경고적 권고는 바울의 미래에 대한 성령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 자신의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령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게 될 미래의 고난을 예언했으나,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의 고난에 대해 염려한 나머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여행 계획을 포기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믿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콘첼만은 생각했다.[36] 존 폴힐(John B. Pollhill)은 두로 사람들의 말이 가진 기능은 바울이 예루살렘 고난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표면적인 모순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한 성령의 예언에 의해 동요된 두로인들의 바울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자연스런 반응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37] 고린도전서 14장과 사도행전 21:11에 나오는 아가보의 예언에 대한 그의 관찰에

34) Stanley E. Porter, *The Paul of Acts: Essays in Literary Criticism, Rhetoric, and Theology*,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zum Neuen Testament 115 (Tübingen: Mohr Siebeck, 1999), 89.

35) Ernst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602-603.

36) Hans Conzelmann, Eldon Jay Epp, and Christopher R. Matthews,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178;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263, 266. 탠느힐 또한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여행 계획을 포기하도록 권고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37) John B. Pollhill, *Acts*, New American Commentary 26 (Nashville, Tenn.: Broadman Press, 1992), 433.

기초해서, 위더링톤은 구약 예언과 같이, 신약 예언도 성격상 조건적이지만, 다른 한편,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 사이에서 분별을 요구하는 구약 예언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달아보고 걸러내야 했다고 주장한다.[38] 포터는, 바울이 두로 사람들의 경고를 단호히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두로 사람들의 경고를 단지 고려하지 않도록 요청받는다고 보았다.[39] 가벤타는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의 결정에 연루된 높은 긴장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 그녀는 단순히, "누가가 그것을 갈등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제자들의 간청은 주로 위험과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지속한다는 사실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불일치는 두 그룹 사이에 어떠한 긴장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5절에서 분명해진다."라고 언급한다. 존 밀러(John Miller)는 그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 문제를 재고한다. 예언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풀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밀러는 갈등의 존재 자체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여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대에 존재했던 꿈-비전에 대한 통상적인 회의에 주목하면서, 밀러는 삐걱거리는 모순들의 존재는 이해할만하다고 주장한다. 누가의 내러티브에서 인간적인 분별의 역할을 회피하기는커녕, 사도행전의 내러티브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40] 가이사랴에서의 아가보의 예언은(행 21:11) 이런 종류의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두로에서와 비슷한 상황을 초래한다. "우리"라고 명명된 바울의 동료들을 포함해서 이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도록 권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러티브상에서, 바울의 굳은 의지

38) Ben Witheringto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630-631.

39) Stanley E. Porter, *The Paul of Acts: Essays in Literary Criticism, Rhetoric, and Theology*, 90.

40) John B. Faulkenberry Miller, ""Convinced That God Had Called Us": Visions and the Perception of God's Will in Luke-Acts," Ph. D. Thesi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4), 317-318.

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개의 선택 가능한 옵션들(갈 것인가, 말 것인가)을 유지시켜 준다.[41]

3.4. '성령의 감동으로' 된 상충되는 예언들의 문학적 기능에 대한 고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도, 사도행전 21:4b에서 제기된 신학적인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한편, 그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에게 가능한 두 개의 상충하는 선택지를 나란히 제시하는 것은 몇 가지 명백한 문학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그의 계획을 포기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어, 누가는 '주의 뜻'에 순종하려는 바울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한다.[42] 둘째로, 탠느힐이 지적했듯이, 누가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행 21:14)."라고 말하며, 두로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의 동료들이 마침내 바울의 결정에 따르게 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바울에 대한 두 개의 선택지를 유효한 것으로 남겨두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43] 셋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는 독자들에게,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두 길 사이에서 씨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로 결단하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병행시킨 것과 조화롭게, 누가는 두 갈등하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결심을 예수

41)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264.

42) Beverly Roberts Gaventa, *The Acts of the Apostles*, 295; Charles H. Talbert, *Reading Act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Reading the New Testament Series (New York: Crossroad, 1997), 191.

43)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264.

님의 경우에서와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44]

4.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감정적 호소의 요소, 두 선택지 사이에서의 어려운 선택 상황 설정)을 이해하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의 '비극적 역사' 문체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내러티브의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학자들이 제기한 두 가지 질문을 간략히 개관해 보았다. 1) 누가는 왜 진정한 바울 서신들과 달리,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목적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과 관련시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가? 2) 성령을 통해 주어진 예언들 사이의 표면적 모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제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추가적인 제안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설명 방식을 찾고자 시도하는 것은 무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내러티브의 이 부분이 '비극적 역사' 문체에 대한 누가의 관심을 드러내 보여주며, 나아가서 비극적 문체에 대한 누가의 관심이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럴법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비극적 역사'라는 역사 기술 문체는 헬레니즘시대의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누가에게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문체는 그레꼬-로마 시대의 역사 기술 전통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체적 특징에 해당하고, 그 문체는 특히 헬레니즘 시대에 더욱 유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비극적 역사' 문체에 익숙해 있었던 당시 독자들이라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비극적 역사' 문체의 흔적을 발견

44) Ibid., 264-265.

해 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두 갈등하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은 희랍 비극 작가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비극적 상황 설정에 해당하고, '비극적 역사' 문체를 활용했던 비극적 역사가들에게서도 빈번하게 활용되었던 모티브이다. 비극에서의 이야기 패턴을 연구한 바 있는 고전학자 리치몬드 래티모어(Richmond Alexander Lattimore)는 희랍 비극에서의 전형적인 이야기 패턴 중의 하나로, 비극적 영웅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이 비극적 상황을 들고 있다.

>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레스테스는 퓔라데스에게 말했다. 영웅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가 '하나의 결정적인, 때로는 치명적인, 항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은 아이스퀼로스 이래로 아티카 드라마가 그 영웅들을 올려 두었던 모든 상황들의 원초적인 형태를 특징짓고 있다.[45]

역사가들도 자주 그들의 역사 기록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 이야기 패턴을 활용하곤 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에서 귀게스-칸다울레스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 두 선택지 사이에 놓인 비극적 영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귀게스는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칸다울레스 왕을 죽일 것인가'라는 비극적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다. 헤로도토스 이래로 많은 다른 역사가들도 비극적 역사 문체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는 사촌들 간의 결투를 묘사하면서 비슷한 비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46] 우연찮게도 다른 국가의 소속을 갖게 된 사촌들이,

---

45) Richmond Alexander Lattimore, *Story Patterns in Greek Traged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9), 29.

46) 이두희,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

혈연의 정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대의를 택해야 할 것인가 사이에서 결정을 강요받는 비극적 상황이 애절하게 그려지고 있다. 아마도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와 같은 비극적 이야기 패턴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의 결심에 있어서 일관되게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제시된다(19:21; 20:22-23; 21:13). 이런 점에서 그 상황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려운 결정들 앞에 선 비극적 영웅의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른 한편, 누가의 상황 인식은 바울의 상황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듯하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누가의 내러티브에서, 결정은 가이사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21:13-14)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유보된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 그룹은 바울의 결정을 기꺼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맡기면서(행 21:14) 마지못해 용인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47] 우리는 이미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의 안전에 대한 자기들의 염려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 주목해 보았다. 그러나 인간적인 염려 이상의 것이 이 경고에 걸려 있다. 누가의 내러티브는 두 번째 선택지, 즉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을 이기적인 인간적 선택지로 만들지 않는다. 두 상충하는 견해 사이의 신학적 불협화음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문학적으로는 여행 계획의 취소를, 심각하게 재고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신적으로 용납되는, 정당성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로 고양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누가의 내러티브에 따르면, 두로인들의 충고는, 직접적으로 신적인 예언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예언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의한 것이든 간에, 성령에 의해 영향 받은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연구」 37 (2009), 64-68.

47) John B. Faulkenberry Miller, ""Convinced That God Had Called Us": Visions and the Perception of God's Will in Luke-Acts," 318.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누가가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금 언급을 생략하여,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과 관련하여 신적인 목적이 걸려 있는 선택지로 만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들 사이의 신학적인 불협화음을 통해서, 누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여행 포기를 신적인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정당한 선택지로 고양시켰던 것이다.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이들이 반복해서 만류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두 선택지를 유효한 것으로 남겨두는 효과를 갖는다. 이로써 누가는 이 장면을 두 상충하는 선택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비극적 이야기 패턴에 부합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래티모어는 비극에서 선택의 패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탄원자 드라마(예, 아이스퀼로스의 *The Suppliant Maidens*, 에우리피데스의 *The Heracleidae and The Suppliant Women*, 소포클레스의 *Oedipus at Colonus*)와 희생물 드라마(예, 에우리피데스의 *Iphigeneia in Aulis, Hecuba, The Phoenician Women* etc.).[48] 이런 비극들에서 두 가지 대의명분이 상충한다: 탄원자 드라마에서는 종교적인 대의명분과 국가적인 대의명분이, 희생물 드라마에서는 공적인 대의명분과 사적인 대의명분이 서로 상충한다. 이 두 하위 유형 중에서, 바울의 선택은 희생물 드라마에 더 가까워 보인다. 희생물 드라마들에서는, "죽음이, 그것이 신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필연적으로 보이며, 영웅은 그것을 보고 동의하며 그 행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미리 고정된 패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에서 유사한 미리 고정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49]

48) Richmond Alexander Lattimore, *Story Patterns in Greek Tragedy*, 46-49.

49) David L. Balch, *Roman Domestic Art and Early House Churches* (Tübingen: Mohr Siebeck, 2008), 87-92. 발취는 폼페이의 프레스코들에 대해 논의하는데, 거기서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녀의 조국과 동료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 놓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발취는 이피게네이아, 이삭, 그리스도 사이에는 그들의 자발적인 희생 죽음이라는 견지에서 눈에 띄는 유사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누가가 내러티브의 다른 부분에서도 상충하는 두 개의 대의명분 사이에 존재하는 비극적 상황에 민감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누가복음 22:39-46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 앞에 놓인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씨름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십자가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갈 것인가?(눅 22:42). 예수의 고뇌가 '피 방울 같은 땀방울'이라는 비유에 의해서 생생하게 고양 된다(눅 22:44).[50]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두 선택지 사이에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기도 한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굴복할 것인가?(행 4:19b; 5:29b). 이 두 사례는 드라마적 장면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대의명분과 신적인 대의명분 사이에 존재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누가의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51]

있음에 주목한다. 다른 한편, 아울리스에서의 이피게네이아의 조국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은 특히 사도행전에서 사명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바울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결정(눅 22장)과 유사점을 지닌다.

50) 겟세마네 장면은 물론 누가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가 받은 전승의 일부분이다(마 26: 36-41; 막 14: 32-42). 그러나 '피방울 같은 땀방울'에 대한 누가의 비유는 '비극적 역사' 문체의 특징인 생생한 장면 묘사에 대한 누가의 관심을 드러내주는 듯하다. 한편, 본문 비평을 고려할 경우 누가복음 22:44가 본래 원문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사본 증거들이 엇갈린다. 그러나 이 구절이 설령 본래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첨가가 생생한 묘사가 누가의 전체적인 문체적 특징에 잘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유에 대한 우리의 주목은 여전히 의미 있다고 하겠다.

51)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를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신적인 대의명분을 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인간적인 육신의 안전을 위한 인간적인 명분을 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도들의 경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적인 명분을 따르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과 목숨을 중요시하는 인간적인 명분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 나타난 누가의 '비극적 역사' 문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살펴본 바울의 고별 설교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 표현들은 문학적 흐름상 불필요한 첨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누가가 '감정에의 호소'라는 '비극적 역사' 문체를 활용하여 독자들과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 본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결심의 묘사에서 드러난, 신학적으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 내용은 예루살렘 여행 목적과 관련하여 구제금 전달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피한 것과 합하여, 두 개의 상충하는 선택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결단을 부각시켜, 독자들이 '비극적 상황'과의 연상작용 속에서 더 강도 높은 감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비극적 역사' 문체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을 논해 보았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상의 논의는 기존의 내용 중심적 연구에서 조금은 벗어나, 의미 전달의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는 점에서 최근의 문학 비평 방법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행 문학 비평이 주로 현대의 문학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을 고대의 문헌에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필자의 접근은 고대 문헌에서 발견된 문학적 특징에 기초해서 고대의 문헌을 해석해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누가가 '비극적 역사' 문체를 활용하였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누가가 왜 그런 문체를 활용하고자 했는지 아직도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누가가 '비극적 역사' 문체를 활용한 이유는 소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누가-행전은 이방 독자들을 가장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기록한 책이라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누가는 그런 이방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이해하기에

편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의 매체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비극적 역사' 문체는 당시의 역사가이자 신학자였던 누가에게 매력적인 소통의 수단이 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개연적이라고 여겨진다.

<주요어>

'비극적 역사' 문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 고별 설교, 생생한 장면 묘사, 감정에의 호소, 두 가지 어려운 선택지 중에서의 선택, 헤로도토스, 투퀴디데스

<Key Words>

'Tragic History' Style, Paul's Journey to Jerusalem, Farewell Speech, Vivid Portrayal(*enargeia*), Appeal to Emotions, A difficult Choice between two legitimate options, Herodotus, Thucydides.

* 접수일 2010년 10월 14일, 수정일 201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8일

참고문헌

이두희,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37 (2009), 47-76.

이두희, "고대 역사 기술과 내러티브: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4 (2010), 47-67.

Balch, David L., *Roman Domestic Art and Early House Churches*, Tübingen: Mohr Siebeck, 2008.

Conzelmann, Hans, Eldon Jay Epp, and Christopher R. Matthews,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Dibelius, Martin and Heinrich Greeven, *Studie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SCM Press, 1956.

Fitzmyer, Joseph A.,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st ed., New York: Doubleday, 1998.

Gaventa, Beverly Roberts, *The Acts of the Apostles*,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Haenchen, Ernst,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1.

Johnson, Luke Timothy, *The Literary Func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Johnson, Luke Timothy, *The Acts of the Apostles*, Daniel J. Harrington, ed., Sacra Pagina Series 5,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2.

Kurz, William, *Farewell Addresses in the New Testament*, Zacchaeus Studies: New Testament,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0.

Lambrecht, J., "Paul's Farewell-Address at Miletus (Acts 20, 17-38)," Jacob Kremer, ed., *Les Actes des Apotres: Traditions, Redaction, Theologie*,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9, 307-337.

Lattimore, Richmond Alexander, *Story Patterns in Greek Traged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9.

Marshall, I. Howard., *The Acts of the Apost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st American ed., Grand Rapids: W. B. Eerdmans, 1980.

Michel, Hans-Joachim, *Die Abschiedsrede des Paulus an die Kirche Apg 20, 17-38: Motiv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Stud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35, München: Kösel, 1973.

Miller, John B. Faulkenberry, ""Convinced That God Had Called Us": Visions and the Perception of God's Will in Luke-Acts," Ph. D. Thesi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4).

Pollhill, John B., *Acts*, New American Commentary 26,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Porter, Stanley E., *The Paul of Acts: Essays in Literary Criticism, Rhetoric, and Theology,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zum Neuen Testament; 115*, Tübingen: Mohr Siebeck, 1999.

Spencer, F. Scott, *Ac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Talbert, Charles H., *Literary Patterns, Theological Themes, and the Genre of Luke-Acts*, Missoula: Scholars' Press, 1975.

Talbert, Charles H., *Reading Act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Reading the New Testament Series, New York: Crossroad, 1997.

Tannehill, Robert C.,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2: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1.

Walaskay, Paul W., *Acts*, Westminster Bible Commentary Companion, 1st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Witherington, Be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Carlisle: W. B. Eerdmans/Paternoster Press, 1998.

<초록>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 문체

이두희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그레꼬-로마 역사 기술 전통을 살펴보면, 헤로토토스와 투키디데스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비극에 속하는 문학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읽는 재미를 더하고,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꾀하곤 하였는데, 이처럼 역사 기록에 있어서 비극에 속하는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기술 문체를 가리켜 폴뤼비오스는 '비극적 역사'라고 명명하였다. '비극적 역사' 문체의 특징으로는 1) 전형적인 비극적 이야기 패턴의 하나인 'koros(포만)-hybris(오만)-ate(미망/파멸)' 도식, 2) 두 가지 어려운 선택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 3)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인식과 '비극적 아이러니'를 통한 '연민과 공포'의 유발, 4) 생생한 세부 묘사(enargeia), 5) 때 늦은 깨달음(ophsimathia) 패턴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어려운 선택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과 '생생한 묘사'를 통한 '감정에의 호소'라는 특징이 사도행전 20:1-21:16에 해당하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 부분에서 발견됨을 살펴봄으로써, 누가-행전의 저자가 '비극적 역사' 문체를 활용하여, 독자들과의 소통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관찰은 했으면서도, 그 유래와 기능에 대해 효과적으

로 설명하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제안이 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사도행전 20:36-38에 나오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별 장면 묘사로서, 많은 학자들이 그 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감정적 묘사에 주목하였으나, 그 효과와 유래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왜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서는 바울의 여행 목적이 분명하게 '구제금의 전달'과 연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누가가 도입한 '비극적 역사' 문체와의 관련 하에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Abstract>

'Tragic History' Style in Paul's Journey to Jerusalem

Lecturer. Doo-Hee Le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In the tradition of Greco-Roman historiography, most historians, including Herodotus and Thucydides, have employed literary techniques used in Attic Tragedy so that they may maximiz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thereby entertaining readers. In his *Histories*, Polybius called it 'tragic history.' Some of characteristics of 'tragic history' are as follows: 1) *koros*(satiety/surfeit)-*hybris-ate*(infatuation/ruin) pattern, 2) a dilemma between two difficult options, 3) evocation of 'fear and pity' by 'tragic irony' and recognition of inevitable fate, 4) vivid portrayal(*enargeia*), and 5) late-learning(*ophsimathia*). In this paper, I attempt to demonstrate that we can find out two of those characteristics of 'tragic history' style in the description of Paul's

Journey to Jerusalem(Acts 20:1-21:16): vivid portrayal and a dilemma between two legitimate choices.

Regarding the pericope of Paul's journey to Jerusalem, there have been two enigmatic issues which were not easy to explain out: 1) an extra-ordinary emphasis on emotions in the portrayal of Paul's parting from Ephesian elders and 2) why Luke did not mention explicitly 'delivery of collections for the poor,' which is specified in Paul's letters(Rom. 15:25-26; 1 Cor. 16:1-4), as the purpose of visit to Jerusalem. Many scholars have recognized those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have tried to answer them. But no explanation was definitively satisfactory. This study suggests a plausible way to answer those two questions that have long been recognized but unsatisfactorily explained. In my view, those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Luke's intentional employment of 'tragic history' style to enhanc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with readers.

By employing 'tragic history' style, in other words, making readers emotionally engage in the message Luke tried to communicate, Luke enhanced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t the same time, in doing so, Luke made sure that the readers listen to his message that they should follow Paul's way in making decisions.